

두 가지 問題

俞 景 哲

三·六建築研究所 代表

1. 建 築 狀 況

어떤 사람은 오늘의 建築現狀을 가리켜 混沌期 또는 過度期 建築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는 '現代'라는 時代를 文化形態가 정립되지 않은 未同化 時期로도 잡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대체로 建築뿐만 아니라 모든 社會現狀이 옛날처럼 一目瞭然하지도 않으며, 그 現狀이 종래와 같은 方法으로 잘 규명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종래 政治, 經濟, 社會, 藝術 등 제분야에 걸쳐 하나의 一般現象을 당 時代 여건과 당 시대 행위자 특질의 함수관계로 규명하여 왔으나 그 시대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行為者의 특질마저 천차만별한 現今에서는 하나의 現象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옛날처럼, 특정 양식이 成立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國家간의 文物교류가 빈번해지는 데도 원인이 있겠으며, 이 방면에 종사하는 행위자의 數的 증가와 이들의 創意力이 날로 高揚되어 지는 데도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대로 일괄되지 않은 建築現象이 오래 지속되어도 좋겠으나, 날로 증가되는 行為者, 즉 建築人의 增加와 그들의 創意力은 왕왕 社會와 동떨어진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데, 이른바 視覺公害라는 말로 표현되어도 좋을 듯하다.

創意力, 創造, 創作 등의 어휘는 무엇을 말함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만들어 질 수는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創作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미 저질러진 무수한 建築物 遺産위에서 創作活動을 하는 셈인데, 이 活動은 순수한 모방과 진정한

意味의 創作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라 풀이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模倣에 가까운 쪽에서 作家수업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진정한 意味의 創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建築을 藝術活動의 일환으로 보고자 할 때 創造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後者의 값어치는 배가 되는 셈이나, 建築이라는 創造行為를 지배하는 크나큰 大義命題인 社會性내지 普遍性을 전제로 할 때 생겨나는 문제들은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근한 예로, 몇해전 光化門 승전비각 부근 건물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70年代 초반을 주름잡는 각종 지붕형태를 볼 때 그 수많은 지붕형태의 차이 만큼, 많은 作家들이 개개인의 創意力을 발휘한 셈인데 創意力과 變造와는 어떤 선에서 구분이 되어야 할지 아쉬운 감이 있다.

建築士는 순수한 創意力을 구사하기에 앞서 수천년에 걸쳐 이루어진 美의 원리나 디자인 원리를 일단은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연후라면 創意力은 발전적으로 高揚되지 않을까 사료되는 바이다.

지붕형태의 변조를 두고 자신의 創意力을 저울질 하려는 간지러운 作業과 비록 無學無知할 망정 素朴 誠實한 眼目에서 어느 시골 초가지붕이나 스텝 지붕을 만들어 내는 匠人의 作業은 어떻게 비교해야 될 것인가.

創造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기존 秩序의 존중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근래 당국이 제정한 지붕형태 규제안은 바로 그러한 현상에 대한 고충을 말함이지만, 創作을 바탕으로 하는 建築士에 있어서는 造形上的 制限을 받게 되어 매우 불 유쾌한 일이며 부끄러운 노릇이라 할 것이다.

옛부터 建築에 가해 지는 각종 法的 規制는 많았다. 또한 建築物이 社會의 물의를 자아 낸 일도 허다하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建築이 다른 장르의 藝術과는 달리 社會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때문이며, 作家 자신의 藝術世界의 具現이나, 순수한 創意力의 구사만으로 존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建築士 스스로의 겸허한 자세는 지금의 이러한 狀況을 넘어설 수 있으며, 高揚된 創意力을 發展의 으로 구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 되는 바이다.

2. 室內裝飾

近來 建築에 있어서 室內裝飾이라는 問題가 두드러지게 浮刻되고 있음을 주지해 오는 바이다. 우리의 生活 속에서 室內裝飾이라는 다분히 裝飾的인 면이 유독 지목되는 데는 그 만큼 生活이 經濟的 安定을 얻고 있으며 居住만을 위한 室內에서 裝飾이 부가된 展不的空間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暗示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傾向에 힘입어 室內裝飾業이라는 職種이 雨後竹筍格으로 마구 亂立되어 감에, 더러는 建築과 室內裝飾이 獨立되어 진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실제 건축과정에서도 양자가 分離되어 施工되어지고 있음이 散見되는 터이다. 그러나 양자가 分離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결코 看過되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체로 建築의 本質的인 면이 무시되어 지거나, 그중의 노력이 소모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에 앞서 室內裝飾이라는 것은 그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도 判別되어야 하겠으나 文字대로 辭典的 풀이를 하자면 그 범위는 대체로 骨造가 끝난 室內部에서 이루어 지는 裝飾行爲, 즉 내부 마감재료, 家具, 조명, 커튼, 카피트 벽장식등에 대체적으로 한정되어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모두 建築行爲에 부수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點에 想到하여 볼 때, 室內裝飾행위는 獨立的인 것이 아니며, 室內形成이라는 建築의 大義命題 아래 풀려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하나의 建築物을 위해서 두가지 이상의 디자인 原理가 적용될 수도 있겠으나, 그 原理조차 뜬 구름처럼 荒雜한 感이 있고, 적용시키는 主体가 둘일 경우 혼잡이 일어나고, 經濟的 손실이 디자인 效果이상으로 클 수 있는 것이므로 注意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 建築다운 建築物이 적다해서인지 건축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무시되어 지고 술한 建築物이 裝飾業者의 손에 改造되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근한 例로, 지은 지 1년 안팎의 집이 室內裝飾이 바뀐다면 建築空間을 이루는 기둥, 보, 耐力壁등 구조체가 손상되거나, 室內裝飾때문에 불합리한 구조체가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되는 데 건축을 설계한 사람의 처지에서는 섭섭한 감을 금하기 어려운 것이다.

歷史上의 사실을 들추거나 누구누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建築의 本質은 空間形成에 있으며 空間을 形成하는 構造技術을 넘어서 실현된 空間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建築設計過程에서 이미 작성된 構造物에 대한 하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자칫 室內裝飾 뿐만 아니라 室內空間을 이루어 주는 건축물 자체의 存在마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방이 좁다 하여 耐力壁을 헐어 室을 넓히거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건물속에 韓屋形態를 재현하기 위해 대들보를 매달고 서까래를 올려 슬라브 및 壁體에 무리한 하중을 주거나 室內 분위기를 田園的으로 꾸민다는 미명하에 흙더미와 바위덩어리를 들어다 깔고 놓는 것은 設計者의 意圖를 어떻게 대변하려고 하는 소행인지

그들은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空間이 어떻게 해서 생겨 나는지를 생각해야 되며, 구조의 不合理性·構造上 虛構가 建築意匠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좋은 디자인은 여러모의 合理性과 假飾 없는 순수함과 성실성에서 이루어 짐을 銘心해야 되지 않을까?

더우기 과감하게도 内部裝飾의 연장이라는 美名아래 建物마다 얼룩강아지를 만들어 가며 自己만을 내세우는 요즈음의 作風은 廣告公害이상으로 社會問題를 야기 시키며, 이어지는 後進들에게 부끄럽기까지 하다.

한동안 造景家가 많은 정원사인지 하는 職種이 建築을 제쳐놓고 標流하다 그네들의 限界點과 建築人과의 協同을 다시 認識한 후에 비로소 定石의 뿌리를 내리듯이 새로운 建物의 設計時에만 美觀地區 심의 위원회의 사슬이 퍼런 난도질에만 期待할 것이 아니라, 겨우 햇빛을 본 건물이나 既存建物들이 간혹 不誠實한 사람들의 作風으로 대중에 대해 怪物로 둔갑하는 요즈음 우리 建築人들의 좀더 겸허한 自制와 協同이 要望되는 때이다.